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사춘기 청소년의 성적 성숙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변화의 영향, 심리적 변화로 나타나는 갈등과 이성교제를 통해 이성교제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1987년도 K고등학교 교지에 실린 특집기사 자료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20년 전의 자료와 현시대의 자료 비교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성별, 종교, 부모교육수준, 생활수준, 학업성적, 이성교제 경험 유무가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차이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적 성숙 이해도가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성교제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서울시에 위치한 K고등학교 학생 1·2학년 586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년 전·후의 남학생 두 집단을 비교 분석 해보면 성적 신체적 변화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1987년도 남학생은 2007년도 남학생보다 성욕을 느낀 적이 있으며,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는 성 특징에 대

해 불만이나 당혹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적인 조속함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서 1987년도 남학생은 2007년도 남학생보다 성적인 욕구는 집단 활동을 통해서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성교제 외에도 관심을 쏟을 만한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속함은 자신의 성숙에 긍지를 갖게 하고 또 어른스러운 대우를 받게 한다고 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2007년도 남학생은 1987년도 남학생보다 정서적 상태가 신체적·성적 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성교제관에 있어서 1987년도 남학생은 2007년도 남학생보다 인간관계, 남녀 간의 인간적인 이해와 인격적인 결합, 이성을 존중할 줄 알게 된다고 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2007년도 학생은 1987년도 학생들보다 이성교제는 성인이 되어가는 지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20년 전·후의 인간관계, 인격적 결합, 이성교제를 통해 이성을 존중할 줄 알게 된다는 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응답의 차이는 있지만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성적 성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바르고 긍정적인 이성교제관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성별, 종교, 부모의 교육수준, 생활수준, 학업성적,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 성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성교제관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성적 성숙도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바르고 긍정적인 이성교제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 종교, 부모의 교육수준, 생활수준, 학업성적,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정의 생활수준이 상류층이라고 지각할수록 학업성적 상위권이라고 지각할수록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적 성숙 이해도가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으로는 성적 성숙 이해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성적 성숙 이해도, 성별, 이성교제 경험 유무가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적 성숙 이해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전 남학생만 공부하던 시기의 학생들이 현시대의 남녀 공학인 학생들보다 이성교제에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 성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바른 이성교제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성교제 경험이 있고, 성적 성숙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이성교제관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수준, 생활수준, 학업성적이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시대의 청소년들을 20년 전의 청소년들과 비교 분석하여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보다 건전한 이성교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성적 성숙 및 이성교제관	6
1) 청소년의 성적 성숙	6
2) 이성교제관	9
2. 부모-자녀 의사소통	13
3. 선행연구 고찰	16
1) 성적 성숙과 이성교제관 선행연구	16
2)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성적 성숙 및 이성교제관에 관한 선행 연구	18
III. 연구방법	22
1. 연구의 개념적 틀	22
2. 연구문제	23
3. 연구대상	23
4. 측정도구	24
5.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26
6. 자료 분석	26

IV. 연구결과	28
i.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8
ii. 20년 전과 현시대 청소년의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 변화 비교연구 ...	31
iii.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의 차이 및 영향 ...	46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의 차이 검증 ...	46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검증	50
3.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이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에 미 치는 영향	55
4. 성적 성숙 이해도가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	57
5. 이성교제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부·교육수준)	58
6. 이성교제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모·교육수준)	59
V. 결론 및 제언	61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3-1>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의 신뢰도	25
<표3-2> 의사소통 유형별 신뢰도	25
<표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0
<표4-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의 차이 · 47	
<표4-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차이	51
<표4-4>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이 성적 성숙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 56	
<표4-5>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이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	56
<표4-6> 성적 성숙 이해도가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	57
<표4-7> 이성교제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부·교육수준)	58
<표4-8> 이성교제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모·교육수준)	59

그림목차

<그림 3-1> 연구의 개념적 틀	22
<그림4-1> 자신의 신체적 변화의 영향 정도	32
<그림4-2> 성적인 조숙함에 대한 가치평가	36
<그림4-3> 이성교제관	4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청소년기는 성적인 잠재기인 아동기에서 벗어나 신체적 성숙과 함께 2차 성징이 출현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거의 2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인간생활에 있어서 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처럼 중요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신체적 변화는 모든 연령층에서 일어나지만 10대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 제2의 성장급등기로서 급격한 신체 발달, 생리적 변화, 성선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는 사춘기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은 급격한 심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성에 대해 강한 호기심과 동경으로 이성교제를 원하게 되며, 성적인 갈등에 휩싸이기도 하면서 이성교제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장차 결혼생활을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춘기 전·후의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성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되지 못할 경우에 사회적으로 불손한 태도 및 행동, 반사회적인 태도 및 행동이나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은 평균 연령이 15~18세 사이로 신체의 발달은 거의 완성되어 사춘기를 경험하고, 지능 발달이나 정신적인 면에서의 발달 또한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기이며 아무런 회의 없이 수용하였던 자기 존재에 대하여 새로운 의문과 탐색이 시작되면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고 여기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Erikson의 견해이다(유안진, 1987). 이렇게 확립된 자아정체감은 대인관계 특히 이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성이라는 감정 없이 그냥 친

구로서만 대해 왔던 상대방을 성숙된 이성으로 느끼게 되고 자신도 또한 성장한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하게 된다(서상원, 2005). 그러므로 이 시기 청소년은 이성을 갖고 행동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이성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Erikson은 청소년 간의 조속하고 친근한 애정 관계가 성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시도라고 본다. 그리고 각자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난 뒤에야 영원한 친근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며 청소년이란 성적, 사회적, 이념적, 직업적인 적응기이며 또한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했다(Muuss, 1981: 57).

청소년기에 이르면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함께 불안과 긴장,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같은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은 높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고 부모의 지배나 간섭을 벗어나려는 심리적 이유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의 성장 과정과 성숙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이다.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부모의 생각, 태도, 감정, 느낌 등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또한 가정의 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서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무엇보다 부모와의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장해순·강태완, 2005). 성에 대한 가치관은 또한 부모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가 성적 성숙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와 이성교제관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부모-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 교류관계로서 광범위한 경험과 책임을 공유하는 밀접한 관계이다.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상호 간의 공통적 이해'를 근간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인 의사소통은 언어적 상호작용으로서 부모-자녀관계를 분석하는데 강조되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허재경, 2001).

부모 자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연령과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세대 차이나 갈등을 해소 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가 바람직한 성 태도와 성 행동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 및 가치관을 변화시켜 성의 고민과 갈등, 탈선 등의 행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모색하고, 문제를 어떻게 배려하고, 지도하고, 교육해서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하게 하여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풍부한 환경에서 청소년의 지적발달과 정서발달에 더욱 촉진 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바른 시각을 가지게 하고, 적절한 태도로 이성교제를 하며 매우 긍정적인 의식구조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서구 문명의 유입과 1960년대 이후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삶의 질도 높아져 갔다(봉공진외, 2001). 이로 인해 1980년대 후반 청소년들의 영양상태가 향상되었고, 그 전에 비해 청소년의 발육도 서구화되기 시작하였다. 신체가 자라는 것 뿐 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적 성숙도 예전에 비해 빨라지고 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대 다수가 이성교제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고 있다(고애자, 1990; 이영숙·이춘하·이정애, 1996; 이백희, 2000; 조승희 2003).

한 개인의 성장과 행동 양식에 있어서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의

가치관 확립에 있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K고등학교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년 전의 청소년의 성적 성숙과 이성교제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얼마나 성숙도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달라졌으며, 이성교제관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며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기 자녀의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과의 관계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K고등학교 학생들의 20년 전·후의 시대에 따른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에 대한 이해와 이성교제관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현시대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성적 성숙과 성적 조숙함

성적 성숙은 일반적으로 사춘기에 이루어진다. 사춘기의 어원은 라틴어의 pubertas, 즉 성인에 이르는 시기로서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 성숙을 자신의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는 생활변화의 정도, 성욕유무의 정도, 성적 성숙 고민 등으로 보았으며, 성적인 조숙함은 정서의 변화, 긍정적 활동을 통한 욕구충화, 관심 대상의 다양성, 외형적 변화 등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해도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2) 이성교제관

이성교제는 이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성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며 서로 존중하면서 예절이나 책임감을 터득하여 남성관, 여성관을 확립시키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다. 이성교제는 인격적인 결합이며, 인간적인 이해이며, 건전한 인간관계이다.

여기서는 이성교제관을 인간관계, 이성교제의 의의, 동성 간의 관계, 성인이 되어가는 지표 등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는가를 통하여 긍정적,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자 한다.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에 정보, 지식, 경험, 사상, 신념, 감정 등을 공통화하거나 공유화하기 위한 일련의 상징적 교호작용적 과정이다.

여기서는 개방적 의사소통만을 보고자 한다.

- 개방적 의사소통이란 부모 자녀 간의 감정표현과 정보교환이 솔직하고 자유스러우며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와 만족의 정도가 높음을 말한다.

Ⅱ.이론적 배경

1. 성적 성숙 및 이성교제관

1) 청소년의 성적 성숙

인간 발달과정에서 청소년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한계선상의 주변인으로서 뚜렷한 역할 의식이 수반되지 아니한 전환기를 치루고 있다. 청소년은 신체적 성장에 부응하여 아동기를 급속히 벗어나지만 완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숙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성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이 지니는 독특한 심리상태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문화적, 사회적인 함수관계에서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신체적, 생리적인 면에서도 해석되어야 한다(Muuss, 1981).

청소년(Adolescence)이란 용어는 Latin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 또는 ‘성숙으로의 성장’ 즉 ‘성숙을 향한 성장’이란 의미이다. 청소년기는 시작과 끝의 정확한 시점은 없다. 청소년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일반적인 시기를 지칭하는 문화적 개념이다. 반면, 사춘기는 인간이 성적으로 성숙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시기를 지칭하는 생리적인 개념이다.

발달심리학자인 Hurlock(유안진·서봉연, 1982에서 재인용)의 분류를 살펴보면 세 단계로 나뉘어 진다. 청소년기를 청년 예비기(*preadolescence*)는 11~12세에서 13~14세의 사이의 기간으로서 반항적 태도가 나타나는 시기, 일명 사춘기라 불리 운다. 청년 전기(*early adolescence*)는 청년 예비기 말에서부터 16~17세경까지로서 대략 고등학교시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

은 어색한 행동을 보인다고해서 부조화기(awkward age) 라고 부른다. 청년 후기(late adolescence)는 17~18세경에서 21~22세 까지로서 대학 시기에 해당하며, 행동이 세련되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세련의 시기(smart age), 혹은 과시의 시기(show off age)라고도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춘기는 가끔 청년기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사춘기가 되면 곧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청년기가 없었거나 또는 있어도 길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춘기가 곧 청년기를 의미하였다. 사춘기(puberty)라는 말은 Latin어의 pubertas에서 유래된 것으로 성인에 달한 시기를 의미한다. 즉 사춘기는 성적 성숙이 되는 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청년기 또한 ‘성숙한다’와 ‘성숙해진다’ 즉 ‘성숙을 향한 성장’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사람의 일생 동안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성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성숙과 더불어 곧 성인이 되지 않고 긴 청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춘기와 청년기가 구별되며 발달심리학에서는 사춘기를 청년기가 시작되는 예비 단계로 간주하고 있다(유안진·서봉진, 1982).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것들은 사춘기라는 발달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신체적 성장 비율이 전보다 2배 정도 빨라지는데 남성은 13~15세 사이에 신장, 체중, 가슴둘레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17세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19세를 넘으면 거의 증가를 볼 수 없다. 여성은 남성보다 약 2~3년 일찍 급격한 증가를 보이나 성장의 정점은 남성보다 낮으며, 발달의 정지도 2년가량 일찍 나타난다. 신장이 급격히 커지고 나서 몸무게의 증가와 체형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종적 신장 다음에 횡적 확장이 뒤따르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신체적 성숙에는 개인차가 있는데 같은 나이의 친구들보다 성숙이 늦은 남자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자아상(self - image)을 갖게 된다. 그러나 조숙한 경우에는 또래들에 비해 더 뛰어난 운동능력을 갖게 되어 부러움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발달이 늦은 경우에는 미성숙하고 불안전하며 대처능력과 인지능력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김태련·장휘숙, 1998). 조숙한 여자 아이들은 늦게 성숙한 아이들보다 덜 사교적이고, 덜 표현적이며, 덜 침착하고, 더 내성적이고, 부끄럼을 잘 탄다(Jones, 1958; Peskin, 1973, Papalia 1992 에서 재인용). 조숙한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보다 더 크고 다른 여자 아이들보다 가슴이 더 풍만하므로, 눈에 너무 잘 뜨인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헤쳐 나가는 바로 그 과정이 그 후의 인생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경험이다(Papalia, 1992).

성적 조숙과 만숙이 또한 성격 및 사회성 발달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조숙아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상이한 성격을 형성시켜 나가게 된다. 조숙아는 주위에서 체구가 작고 어리게 보이는 친구들과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방관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태도가 일반화되면 비협동적이고 초월적인 성격 특성을 형성 발달시킨다. 반대로 만숙아는 오래도록 어린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의존적이고 애정이나 관심욕구적인 특성을 발달시키게 된다(유안진, 1987). 이렇듯 성적인 조숙함은 개인차가 있어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즉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는 성적인 변화는 청소년의 성격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성적으로 조숙한 청소년은 자신의 성숙에 긍지를 갖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른스러운 대우를 받으며 또한 지도성이 기대된다. 반대로 만숙아는 열등

감을 느끼고, 소극적이며, 내향적 성격이 되기 쉽고 사회적 접촉 기술이 발달될 기회가 적어진다.

이 시기의 발달과업을 원만히 성취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도 성격발달의 방향이 달라진다. 즉, 발달과업을 잘 성취하게 되면 밝고 활발하며 자신감이 있는 긍정적인 성격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는 고등학교 시절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며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신체적·정신적 성숙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숙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적 성장의 영향 정도, 성적인 조숙함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각 응답자가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의 결과를 인원수와 퍼센트로 나타내고,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성교제관

친구를 사귀는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다를 바가 없다. 옛날과는 달리 현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많이 너그러워진 것 만은 사실이다. 청소년들의 성장발달 과정을 볼 때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은 이성에게 호기심을 갖고, 갈망하며 이 상태를 계속 발전시켜 서로 사귀고 싶고, 사귀고 있는 현상은 자연적인 생리 현상에 속한다. 서구 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자연스러운 이성교제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각기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심리적인 차이, 사

회적인 역할의 차이와 한계를 이성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제 대상을 특정한 한 사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교제 범위를 넓혀서 재능과 취향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 그룹으로 이성교제를 하고 우정을 키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서로의 지적·정서적 성숙을 자극하고 공동 관심사에 협력할 줄 아는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며, 이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하고, 이성에 대한 지나친 적대감이나 공포감을 갖지 않게 해주는데 이성교제의 참다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애정 관계가 아니라 우애 관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성 간의 밝은 교제 즉 우정을 돈독히 하는 이성교제의 기능은 첫째, 이성친구와 상호작용을 통해 동성 친구에게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역할을 배우게 되어 사회생활의 훈련을 하게 된다(사회화기능). 둘째, 이성과 사귀면서 남녀의 특성 차이를 알고 이성에 대해 적응하게 된다(이성에 대한 적응기능). 셋째, 이성교제를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알게 되며 스스로 반성함으로써 정상적인 인격형성을 하게 된다(인격형성의 기능). 넷째, 젊은이들은 이성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함께 여가를 즐기면서 생활에 흥미와 의미를 갖게 된다(오락적 기능). 다섯째, 이성교제를 통해 인격적으로 서로 어울리며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배우자 선택의 기능) (봉공진외 2001).

청소년기에 있어서 교우관계, 이성교제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이다. 교우관계가 장래의 성공과 실패에 큰 변수로 작용하며 또한 얼마나 진실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느냐 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매력적이며 동시에 위협적일 수도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상호작용 시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청

소년의 이성교제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결혼에 대한 언질을 내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닥쳐 올 결혼 적령기에 대비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 안목을 높여줌과 동시에 그 시기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이성교제는 권장되어야 한다. 이성교제는 즐거운 일이며 데이트를 기다리는 마음은 그들의 생활에 피드백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성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고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고 충분한 여유를 갖게 됨과 동시에 교제는 일정한 규율이 있고 또 여기에는 일정한 예의도 있어야 한다.

이성교제는 개인적인 남녀 간의 교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남녀교제에 관한 예절이나 책임감을 터득하여 인격적 융합(融合)과 합일성(合一性)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또 한편으로는 정확한 남성관, 여성관을 확립하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이금영, 1991).

일반적으로 이성교제 하면 결혼문제가 연상되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친구의 입장에서 막연하게 사귀다가 어떤 경우에는 서로의 애정이 깊어져서 가까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결혼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상대방을 결혼상대자로 결정하지 않더라도 이성교제 경험은 이상적인 배우자 선택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이성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배우자의 선택에 있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는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정신적, 육체적 변화가 가장 심한 과도기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에의 갈등 또한 가장 심하게 작용하며 이 시기의 정신적 갈등은 주로 자아의 발견에 기인되며 자아의 발견으로 자신을 인식하며 동시에 이성을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 사회에서는 이성 간의

교제를 부정적으로 보아왔고 이러한 경향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성과의 교제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오늘날은 인간으로서의 성숙은 인간 간의 교제에 두고 있으며 청소년의 이성교제도 이성의 인격에 접하여 쾌감이나 안정감, 행복감과 같은 정신적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상호간의 탐색과정에서 성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서승배, 1985). 이성교제는 단순한 감정욕구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자아 발전, 정서적 안정,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공동목표를 얻고자하는 요구에서 비롯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사춘기의 생리적 변화에 따라 이성과의 성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한다. 우선, 자신의 신체나 친구의 신체의 생리적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 후엔 이성의 신체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실제로 무엇이 변하는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다. 그리고 나서 애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고, 성충동을 느낀다(Hurlock, 1955, 이영숙 외 1996에서 재인용). 사춘기 동안의 급격한 신체적 성장에 따른 정체감 혼미에 의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소속집단에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어느 시기보다도 강하여 친구관계가 중요해진다(김태련, 1992). 동성 간의 우정 뿐 만 아니라 이성 간의 우정관계 및 이성교제도 중요해지는데, 후자의 경우는 성적 성숙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시기의 애정 정서 반응으로는 애정을 일으키는 대상이 가정에서 외부로 옮겨가 동성 친구에게 향하다가 곧 이성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기 시작한다(이문희, 1993). 또한 이때가 되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마음가짐도 달라지며 다소 적극적으로 이성교제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싹트게 되면서 이성에게 접근하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발생한다. 이렇듯 사춘기는 방향을 찾는 시기이다. 그 방향을 하나라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며 어린이 취급을 받

는데서 오는 좌절감이 심리적 갈등을 가져오므로 청소년들이 성장할수록 부모는 자녀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사춘기의 시작은 개인차로 인해 이성에 갖는 태도와 관심은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부모는 올바른 이성교제를 통해 바른 이성교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적 성숙 이해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인간관계, 이성교제의 의의, 동성 간의 관계 및 태도의 변화를 통해 이성교제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인원수와 퍼센트로 알아보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이성교제관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정보, 지식, 경험, 사상, 신념, 감정 등을 공유화하는 것으로 인간과 인간이 의미 공유를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상징적이고 교호작용적인 과정(Miller & Steinberg, 1975)이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서로의 정보, 지식, 경험, 사상, 신념, 감정 등을 공통화하거나 공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상징적이고 교호작용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장해순·강태완, 2005).

여러 학자들은 가족 의사소통 유형을 범주화하는 연구들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Barnes & Olson(1982, 장해순·강태완, 2005에서 재인용)은 부부나 한 자녀의 가족의사소통의 측면을 측정하여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을 개방적 의사소통(open family communication)과 문제적 의사소통(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으로 나누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유형이다. 문제적 의사소통은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의사소통을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조심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능적인 가족에서는 가족원들이 분명한 의사소통망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며 상호의사소통을 통하여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반면에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서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며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행동하는 기술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질·깊이·양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양하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성공적이었으며, 부모와 효율적으로 대화하는 청소년이 사적인 문제를 기꺼이 노출하는 경향을 보였고 보다 큰 행복감을 경험하였으며 의사결정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지침을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이정우 외 1997).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관계망인가 등은 자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며 가족의사소통의 내용과 질은 자녀의 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자녀의 대화는 서로의 기대와 요구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는 자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학교생활이나 친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고, 자녀도 부모의 입장이나 부모의 활동을 이해하고 부모가 자기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임정빈외 공저 2005).

의사소통을 잘하고 자기 표현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첫째, 가족구조에 따른 부모와 자신의 관계 역동을 알고, 그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신의 내면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자신의 내면을 깊이 알게 되고, 자기표현을 하는 정도가 증진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둘째,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행동 때문에 답답해하던 청소년들에게 싸티어의 빙산 기법을 이용하여 부모의 내면의 역동을 알게 하면 부모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부모의 마음을 읽어 볼 수 있고, 자기의 마음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간의 자연스런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셋째, 자신의 내면을 알면 상대의 내면도 알게 되므로 성행동을 결정해야 할 순간에 일치적인 의사표현도 적절하게 할 수 있다(김성애, 2006).

가족 내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촉진시키는 반면,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을 억제한다(Olson Sprenkle & Russell, 1979, 박선자, 2006에서 재인용). 현대사회의 격변은 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며, 또한 구조적으로 핵가족화, 주말부부 증가, 자녀 수 감소,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이와 동시에 학업, 직업으로 이동이 잦고 가정생활이 더욱 불안정하게 되면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 양육, 교육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부모 자녀관계도 상호작용이거나 동료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에 새로운 이해와 조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인생주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에 적절한 새로운 습관, 태도, 행동양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오는 불안과 긴장, 심리적 갈등을 체험하며 그로 인해 인격 형성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족 내에서 잘 성장한 청소년은 혼란과 변화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잘 극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역기능적으로 기능하는 가족 내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위기를 바람직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육체적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응적 행동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허재경, 2001). 이처럼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은 부모-자녀간의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으므로 갈등이 감소되고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로 발전하게 되며, 자신의 가치를 부모에게 표현하게 되므로 내적 긴장을 완화시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에 대한 특징과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태도를 확립시켜 자연스러운 이성교제가 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개방적 의사소통의 차이와 부모-자녀 개방적 의사소통이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고찰

1) 성적 성숙과 이성교제관에 관한 선행연구

청소년의 이성교제 실태에 관한 연구는 대학원 학위 논문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이성교제경험과 이성교제 실태에 따른 선행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 하였다.

고애자(1990)의 중학교 학생들의 이성 친구에 대한 태도 분석 연구에 의하면, 이성교제시 장점으로는 ‘이성교제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에 전체의 38.9%, ‘이성에 대해서 좀 더 바른 이해를 한다.’에 전체의 31.3%가 답했다. 단점으로는 ‘정신적으로 산만해 진다’에 35.1%, ‘주위

에서 이상하게 본다'에 28%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이성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과 함께 이성 친구에 대해 매우 관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숙·하춘하·이정애(1996)의 청소년 이성교제 실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고, 실제 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중학생은 83.4%, 고등학생은 89.2%로 나타났다. 이성교제가 필요한 이유로서는 '이성 친구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므로' 26.2%, '이성을 존중할 줄 아는 자질과 태도를 기를 수 있으므로' 23.3%, '즐거움을 더할 수 있음으로' 15.2%라는 응답이 많았던 편이다.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원하는 이유에서나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에서 이성교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박성정(1996)의 청소년의 성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10명중 3~4명의 학생이 현재 이성친구가 있다고 답했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인문고 보다는 실업고 학생들이 이성친구를 많이 사귀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학업에 있어 남학생은 '별로 지장이 없다' 28.9%, '전혀 지장이 없다' 11.4%, '오히려 도움이 된다'가 25.1%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별로 지장이 없다' 37.4%, '전혀 지장이 없다' 7.2%, '오히려 도움이 된다' 11.8% 로 이성교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백희(2000)의 중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이성교제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 83%라고 답하고 있으며 이성교제경험도 52.6%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시 예절 인식 여부를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이성교제시 '예절을 잘 안다'가 30%, '조금 안다'가 51.7%로 답하였다. 이성교제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성교제시 예절인식도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조승희(2003)의 청소년 이성교제실태 비교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이성교제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와 조금 필요하다’에 83%의 청소년이 반응하였으며 청소년의 52.6%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93%가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김원중(2003)의 남녀공학·비공학 고등학생의 이성교제 실태 비교연구에 의하면, 이성친구가 더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아 본 결과 ‘동성 친구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므로’라고 답한 남학생이 29.2%, 여학생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고, 이성교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성교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은 건전한 이성교제가 무엇인지 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성교제를 통하여 이성의 깊이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성적 성숙 및 이성교제관의 관련에 관한 선행연구

부모-자녀의사소통은 성태도 및 성행동(허재경, 2001), 문제행동(노정화, 2002), 성태도·성행동과 부모-자녀 관계(김주희 외, 2003),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정연호, 2004), 정서상태(권정연, 2005),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장

해순·강태완 2005),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문수경, 2005), 심리적 부적응(박현숙, 2005),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신주연, 2006 ; 박선자, 2006), 가족 속 의사소통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김성애, 2006) 등과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부모-자녀의사소통 유형과 성적 성숙, 이성교제관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부모와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면, 우울, 불안이 낮고, 학업성적이 높으며, 지능이 높고, 성숙한 진로 태도를 가지며 가정생활에 잘 적응하고 만족해하는 등과 같은 대인관계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고,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향력을 지닌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보채, 2003; 권정연, 2005; 박현숙, 2005; 박정자, 2005; 장해순·강태완, 2005; 신주연, 2006).

김성일·김남희(2001)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연구에 의하면, 자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아버지와 의사소통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하였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대체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체감 수준도 높았다.

허재경(2001)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성 태도 및 성 행동과의 관계 연구에 의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 성별에 따라 성 행동 개방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성 태도 허용성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

은 성의 주도권을 가지고 성에 대해 개방적이며 적극적인 반면, 여성은 성에 대해 보수적이며 개방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 성에 대한 의사소통 빈도에 따라 성 태도 허용성 수준과 성 행동 개방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에 대한 부모-자녀 간 대화빈도와 청소년의 성 태도 허용성 수준과 성 행동 개방수준은 상관이 없었고 차이도 없었다.

노정화(2002)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와 더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남학생은 부의 학력이 높고, 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부모와 더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고, 여학생은 부모의 학력이 높고, 부모의 연령이 낮고,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부모와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부-자녀간 의사소통이, 남학생의 경우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내재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는 남학생은 이성교제가, 여학생은 부-자녀간 의사소통이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다.

김주희·송은일·강성희(2003)의 성 태도·성 행동과 부모-자녀관계(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의 차이를 보면, 남자대학생은 성을 보다 허용적이고, 도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여자대학생은 성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성 행동의 차이를 보면, 간접적 성 행동에 있어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본 경험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직접적인 성 행동을 보면, 성교 경험이 있는 경우가 남자대학생은 여자 대학생보다 2.5배 정도 더 많았다. 종교는 성 태도 및 간접적 성 행동을 통제하는 변인이었을 뿐, 직접적인 성 행동 즉 성교 경험을 통제하는 변인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 태도에 있어 허용성과 교류성이 높으며, 간접적 및 직접적 성 경험의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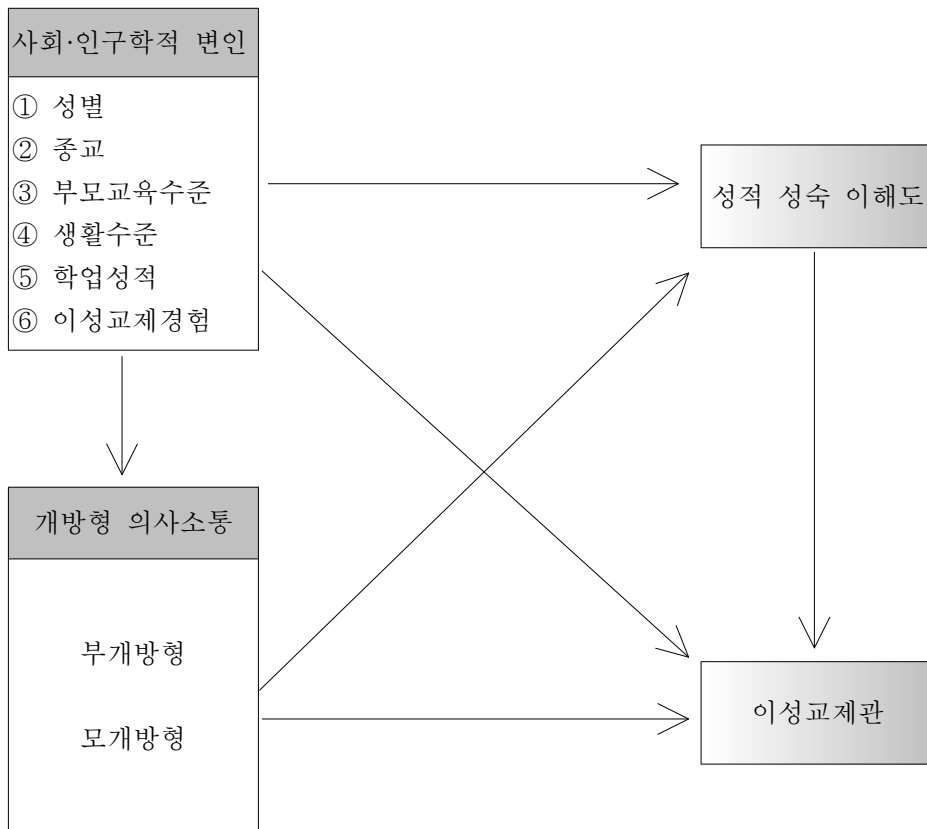
집단이 아닌 일반 청년 집단에 있어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그들의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자녀는 성에 대하여 좀 더 허용적이고, 성을 도구로 간주하는 경향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될 때 자녀가 성에 대하여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성을 남녀 간의 친밀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게 됨을 알 수 있다.

김성애(2006)의 청소년의 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의하면, 밀착된 부모와 자녀가 의사소통이 안 될수록, 통제가 강할수록, 부모가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할수록 자녀는 부모와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성행동을 충동적이거나 쾌락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성별, 학업성적, 부모의 학력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직업, 종교 등은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이 성 행동뿐만 아니라 성 태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청소년 집단에 있어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그들의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될 때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아,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개념적 틀



<그림3-1> 연구의 개념적 틀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K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1~2학년생을 대상으로 20년 전·후의 성적 성숙에 대한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을 비교 연구하고 2007년도 현재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의 차이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i. 20년 전과 현시대 청소년의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ii.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의 차이 및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는 어떠한가?
 3.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이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성적 성숙 이해도는 이성교제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성적 성숙 이해도 중 이성교제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무엇인가?

3. 연구의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는 2007년 서울시에 소재한 K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남·여학생 66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

였다. 질문지는 총 660부를 배부하여 이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지를 제외시킨 586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1987년도 자료는 남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K고등학교 20년 전 주변의 주거 환경은 학교 주위에 공장이 많이 위치하였고 대부분 주택에서 살았으며, 생활이 어렵고 가정환경은 열악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개발이 되어 공장은 찾아 볼 수도 없고 학교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위치해 있으며 주위 환경도 많이 깨끗해졌다.

4. 측정도구

1)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20년 전 K고등학교 교지에 특집으로 실린 질문지를 연구자가 수집·보완·제작하여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에 관한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질문지는 청소년의 성적 성숙 이해도 11문항, 이성교제관 7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 1점, ‘약간 그렇다’에 2점, ‘대개 그렇다’에 3점, ‘상당히 그렇다’에 4점, ‘전적으로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질문지 문항 중 13-3번의 문항은 점수를 역산 처리 하였다.

성적 성숙은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성숙 이해도가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성적 성숙 이해도가 낮다. 이성교제관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이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성적 성숙 이해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5, 이성교제관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2로 나타났다.

<표3-1>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의 신뢰도

변인	문항수	신뢰도 계수
성적 성숙 이해도	11	.75
이성교제관	7	.82

2) 부모-자녀의사소통 유형

부모-자녀의사소통은 Barnes & Olson(1982)이 개발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척도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로서 김윤희(1989)가 번안한 것을 일부 수정하여 질문지로 인용 사용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있어 개방성 정도와 문제성 정도를 측정하는 2개의 하위척도로 된 총 20문항씩 답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만 사용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1, 3, 5, 7, 9, 11, 13, 15, 17, 19)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부개방형 의사소통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0, 모개방형 의사소통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7로 나타났다.

<표3-2> 의사소통 유형별 신뢰도

변인	문항수	신뢰도
부개방형 의사소통	10	.90
모개방형 의사소통	10	.87

5.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K고등학교 1·2학년 7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이해도, 신뢰도(Cronbach's alpha), 적합성, 소요시간을 알아보았다. 예비조사 결과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부개방형 의사소통 .90, 모개방형 의사소통 .87, 성적 성숙 이해도 .71, 이성교제관 .60 이었다. 질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였다. 본 조사의 자료 배부 및 회수는 2007년 7월2일부터 7월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절차는 사전에 질문 조사 협조를 부탁한 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소요령에 대해 안내를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즉석에서 작성한 뒤 질문지를 직접 회수하였다.

6.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다음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구성을 위하여 문항 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을 산출 하였다.

셋째, 20년 전·후의 변화 실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의 차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과 사후 비교 분석의 Duncan-test를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았다.

다섯째,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 성적 성숙

이해도가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았다.

여섯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성교제경험 유무, 부모-자녀의사소통, 성적 성숙 이해도 중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을 찾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i.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종교, 성장지역,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등을 보았다. 표4-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304명(51.9%), 여학생 282명(48.1%)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450명(76.8%), 2학년 136명(23.2%)으로 1학년이 더 많았다. 종교는 기독교 211명(35.8%), 천주교는 62명(10.6%), 불교는 54명(9.2%), 기타 8명(1.4%), 무교 252명(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주로 거주한 곳은 대도시 570명(97.3%), 중소도시 9명(1.5%), 농어촌 7명(1.2%)으로 주로 대도시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라고 답한 학생은 16명(2.7%), 중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생은 26명(4.4%),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생은 217명(37.0%), 대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327명(55.8%)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하라고 답한 학생은 14명(2.4%), 중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생은 23명(3.9%),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생은 305명(52.0%), 대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244명(41.6%)으로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이 없거나 은퇴하셨다고 답한 학생이 18명(3.1%),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21명(3.6%), 기술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58명(9.9%), 자영업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202명(34.3%), 농·어업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1명(0.2%), 사무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161명(27.3%), 경영 관리직 65(11.1%), 전문

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52명(8.9%), 기타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10명(1.7%)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이거나 은퇴하셨다고 답한 학생은 291명(49.7%),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고 답한 학생은 32명(5.5%), 기술직에 종사한다고 답한 학생은 9명(1.5%), 자영업에 종사한다고 답한 학생은 95명(16.2%), 농·어업에 종사한다고 답한 학생은 2명(0.3%), 사무직에 종사한다고 답한 학생은 83명(14.1%), 경영·관리직에 종사한다고 답한 학생은 23명(3.9%),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답한 학생은 46명(7.8%), 기타라고 답한 학생은 5명(0.9%)으로 아버지는 자영업,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가정형편이 상류층에 속한다고 답한 학생은 77명(13.1%), 가정형편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답한 학생은 458명(78.2%), 하류층에 속한다고 답한 학생은 51명(8.7%)으로 많은 학생들은 생활수준이 중류층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적은 상위권에 속한다고 답한 학생은 91명(15.5%), 학업성적이 중위권에 속한다고 답한 학생은 347명(59.2%), 학업성적이 하위권에 속한다고 답한 학생은 148명(25.3%)으로 중위권의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생들이 거주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부모님과 한집에 산다고 답한 학생은 558명(95.2%), 부모님과 떨어져 살지만 같이 사는 가족(예; 형제)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13명(2.2), 친척집에서 산다고 답한 학생은 5명(0.9%), 동성친구와 같이 산다고 답한 학생은 1명(0.2%), 이성친구와 같이 산다고 답한 학생은 6명(1.0%), 혼자 산다. 1(0.2%), 기타라고 답한 학생이 2명(0.3%)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와 한집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 2007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86)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학생	304(51.9)	학년	1학년	450(76.8)
	여학생	282(48.1)		2학년	136(23.2)
종교	기독교	210(35.8)	성장지역	대도시	570(97.3)
	천주교	62(10.6)		중소도시	9(1.5)
	불교	54(9.2)		농어촌	7(1.2)
	무교	252(43.0)			
	기타	8(1.4)			
父의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2.7)	母의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4(2.4)
	중학교 졸업	26(4.4)		중학교 졸업	23(3.9)
	고등학교 졸업	217(37.0)		고등학교 졸업	305(52.0)
	대학교 졸업 이상	327(55.8)		대학교 졸업 이상	244(41.6)
父의 직업	무직·은퇴	18(3.1)	母의 직업	전업주부·은퇴	291(49.7)
	단순노무직	21(3.6)		단순노무직	32(5.5)
	기술직	58(9.9)		기술직	9(1.5)
	자영업	202(34.3)		자영업	95(16.2)
	농·어업	1(0.2)		농·어업	2(0.3)
	사무직	161(27.3)		사무직	83(14.2)
	경영 관리직	65(11.1)		경영 관리직	23(3.9)
	전문직	52(8.9)		전문직	46(7.8)
	기타(무엇)	10(1.7)		기타(무엇)	5(0.9)
생활수준	상	77(13.1)	학업성적	상	91(15.5)
	중	458(78.2)		중	347(59.2)
	하	51(8.7)		하	148(25.3)
거주형태	부모님과 한집에 산다.	558(95.2)			
	부모님과는 떨어져 살지만, 같이 사는 가족(예:형제)이 있다.	13(2.2)			
	친척집에서 산다.	5(0.9)			
	동성친구와 같이 산다.	1(0.2)			
	이성친구와 같이 산다.	6(1.0)			
	혼자 산다.	1(0.2)			
	기타(무엇)	2(0.3)			

ii. 20년 전과 현시대 청소년의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 변화 비교연구

1987년도 남학생과 2007년도의 남학생의 지난 20년 전·후의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을 조사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 5점 척도로 된 것을 표로 만들어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3점 척도로 축소하였다. 전적으로 그렇다와 상당히 그렇다를 그렇다로, 대개 그렇다, 약간 그렇다와 거의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계산하였다.

1) 성적 성숙 이해도

(1) 자신의 신체적 변화의 영향 정도

① 나의 신체적 변화는 나의 생활(학업, 교우관계,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 名(%)	대개 그렇다 名(%)	그렇지 않다 名(%)	계名(%)
1987년 남학생	103(31.4)	57(17.3)	169(51.4)	329(100)
2007년 남학생	75(24.7)	85(28.0)	144(47.4)	304(100)

② 나는 성욕을 느낀 적이 있다.

	그렇다 名(%)	대개 그렇다 名(%)	그렇지 않다 名(%)	계名(%)
1987년 남학생	171(51.8)	73(22.1)	86(26.0)	330(100)
2007년 남학생	96(31.6)	90(29.6)	118(38.8)	304(100)

③ 나는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는 성 특징에 대해 불만이나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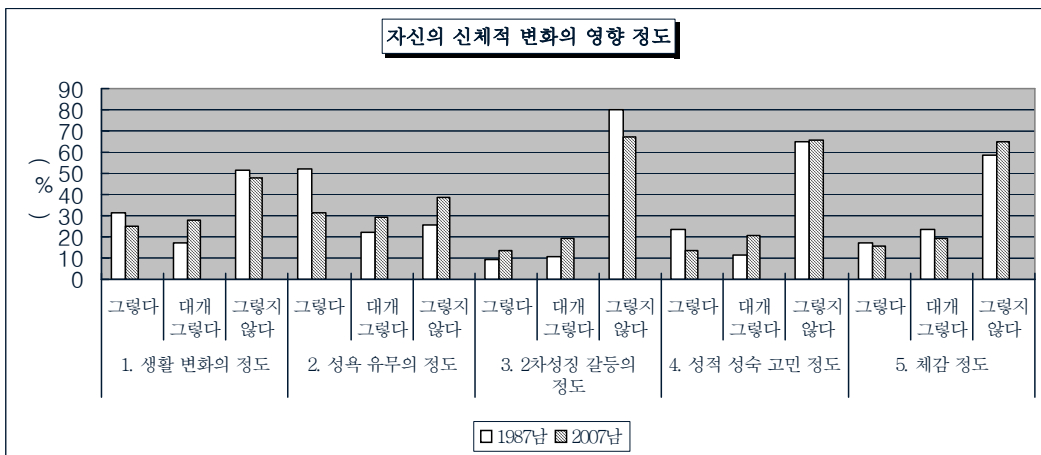
	그렇다 名(%)	대개 그렇다 名(%)	그렇지 않다 名(%)	계名(%)
1987년 남학생	30(9.1)	36(10.9)	264(80.0)	330(100)
2007년 남학생	42(13.8)	59(19.4)	203(66.8)	304(100)

④ 나는 성적인 성숙이 정상인지 아닌지 고민이 된다.

	그렇다 名(%)	대개 그렇다 名(%)	그렇지 않다 名(%)	계名(%)
1987년 남학생	75(23.5)	38(11.5)	216(65.3)	329(100)
2007년 남학생	42(13.8)	63(20.7)	199(65.5)	304(100)

⑤ 나는 자신의 성적인 변화(신체적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

	그렇다 名(%)	대개 그렇다 名(%)	그렇지 않다 名(%)	계名(%)
1987년 남학생	57(17.3)	79(23.9)	195(58.9)	331(100)
2007년 남학생	48(15.8)	58(19.1)	198(65.1)	304(100)



<그림4-1 자신의 신체적 변화의 영향 정도>

1번 문항에서와 같이 ‘나의 신체적 변화는 나의 생활(학업, 교우관계,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1987년도 남학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는 51.4%,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는 47.4%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가 높게 나타난 것은 20년 전·후의 남학생들은 모두 자신의 신체적 변화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번 문항에서와 같이 ‘나는 성욕을 느낀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1987년도 남학생이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51.8%,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는 31.6로 나타났다. 20년 전의 남학생들은 현시대의 남학생들보다 성욕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의 사회 문화적 기반 위에서 고등학생들의 이성교제 경험이 적고, 일반적인 기성세대들의 고정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김혜란(2000)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성교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점차적으로 이성교제를 하는 비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한 성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로 인하여 현시대의 남학생들이 80년대의 학생들보다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3번 문항에서와 같이 ‘나는 신체변화로 나타나는 성 특징에 대해 불만이 나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1987년도 남학생이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9.1% ‘대개 그렇다’는 10.9%,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는 80%로 나타났다. 2007년 남학생이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13.8%, ‘대개 그렇다’는 19.4%로 답하고 있고, 응답자 중 66.8%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20년 전이나 현시대 학생들 모두 성 특징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년 전보다 빈도가 줄어든 것은 우수한 영양 공급으로 인하여 성적 발달이 빨라지고 외모 지상주의에서 오는 사회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번 문항에서와 같이 ‘나는 성적인 성숙이 정상인지 아닌지 고민이 된다.’라는 질문에 1987년도 남학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는 65.3%,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는 65.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5번 문항에서와 같이 ‘자신의 성적인 변화(신체적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

고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하여 1987년도 남학생의 경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17.3%, ‘대개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23.9%, 응답자 중 58.9%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다.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15.8%, ‘대개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19.1%, 응답자 중 65.1%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인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번 문항과 5번 문항을 함께 생각해 볼 때 20년 전이나 현 시대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변화, 성숙을 안정감 있게 조정하는 능력이 배양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성적 신체적 변화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림4-1>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 성적 신체적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87년도의 남학생과 2007년도의 남학생의 경우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는 성 특성에 대해 불만이나 당혹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7년도 남학생은 2007년도 남학생보다 14% 이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초·중학교 때 이미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시기에는 그러한 신체적 변화 뿐 만 아니라 성적 성숙을 이해하게 되며, 자아가 확립되는 시기이므로 자신이 안정감 있게 잘 조정하는 능력이 배양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는 1987년도 남학생보다 자신의 성적인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성적인 조속함에 대한 가치평가

① 자신의 수치심, 열등감, 자기도취, 우울증, 불안, 분노 등의 정서적 상태가 신체적·성적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名(%)	대개 그렇다 名(%)	그렇지 않다 名(%)	계名(%)
1987년 남학생	112(33.6)	74(22.2)	147(44.1)	333(100)
2007년 남학생	55(18.1)	79(26.0)	170(55.9)	304(100)

② 성적인 욕구는 학업, 스포츠, 교내외의 집단 활동을 통해서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 名(%)	대개 그렇다 名(%)	그렇지 않다 名(%)	계名(%)
1987년 남학생	273(82.0)	32(9.6)	28(8.4)	333(100)
2007년 남학생	144(47.4)	94(30.9)	66(21.7)	304(100)

③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성교제 외에도 관심을 쏟을 만한 중요한 일들(학업, 취미생활, 교우관계, 씨클생활 등)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名(%)	대개 그렇다 名(%)	그렇지 않다 名(%)	계名(%)
1987년 남학생	251(75.6)	31(9.3)	50(15.0)	332(100)
2007년 남학생	160(52.6)	80(26.3)	64(21.2)	304(100)

④ 성적인 조속함은 자신의 성숙에 긍지를 갖게 하고, 또 어른스러운 대우를 받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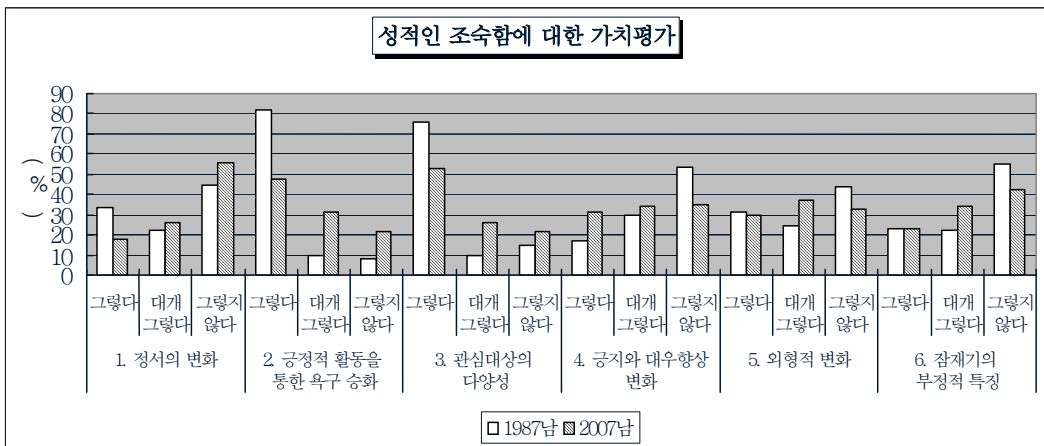
	그렇다 名(%)	대개 그렇다 名(%)	그렇지 않다 名(%)	계名(%)
1987년 남학생	57(17.1)	98(29.5)	177(53.3)	332(100)
2007년 남학생	94(30.9)	104(34.2)	106(34.9)	304(100)

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성적인 변화는 체격과 외모를 변화시키므로, 우울감, 열등감, 지도성,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 名(%)	대개 그렇다 名(%)	그렇지 않다 名(%)	계名(%)
1987년 남학생	104(31.2)	83(24.9)	146(43.8)	333(100)
2007년 남학생	91(29.9)	113(37.2)	100(32.9)	304(100)

⑥ 성적인 발달이 늦은 사람은 의존적이고 애정을 받고자 하는 아동기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名(%)	대개 그렇다 名(%)	그렇지 않다 名(%)	계名(%)
1987년 남학생	76(23.0)	73(22.1)	181(54.9)	330(100)
2007년 남학생	71(23.4)	104(34.2)	129(42.4)	304(100)



<그림4-2 성적인 조숙함에 대한 가치평가>

<그림4-2>에서 보듯이 1번 문항에서와 같이 ‘자신의 수치심, 열등감, 자기도취, 우울증, 불안, 분노 등의 정서적 상태가 신체적·성적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1987년도 남학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44.1%,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는 55.9%로 나타났다. 이는 20

년 전의 학생이나 현시대의 학생이나 정서적 상태가 신체적·성적 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도 남학생은 50% 이상 높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대중매체를 통해 의식구조가 변화되고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2번 문항의 경우 1987년도 남학생의 경우 ‘성적인 욕구는 학업, 스포츠, 교내외의 집단 활동을 통해서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82.0%로 전체적인 문항 중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Freud에 의하면 승화란 일상생활에서 억압 받은 성적 욕구를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에 대치시켜 성욕을 발전적으로 해소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승화의 이론은 억압된 성욕을 예술적·과학적·종교적 작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이 되는 것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20년 전의 학생들은 보수적이었으며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른 것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겠다. 또한 2007년도 남학생도 47.4% 이상 높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20년 전의 학생들보다 퍼센트가 낮게 나타난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공부하느라 청소년들이 집단 활동 할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3번 문항의 경우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성교제 외에도 관심을 쏟을 만한 중요한 일들(학업, 취미생활, 교우관계, 써클생활 등)이 많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1987년도 남학생의 경우는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75.6%,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는 52.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발달과업을 잘 성취하고 있고, 밝고 활발하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번 문항과 3번 문항을 같이 생각해 볼 때 1987년

도 학생보다 2007년도 학생들이 퍼센트가 낮게 나타난 것은 현시대의 학생들은 인터넷, DVD, MP3, 핸드폰 등에 관심이 폭발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4번 문항의 경우 1987년도 남학생의 경우 '성적인 조숙함은 자신의 성숙에 긍지를 갖게 하고 또 어른스러운 대우를 받게 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17.1%, '대개 그렇다'에 29.5%,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는 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적인 조숙함이란 것에 단지 자신의 내면적인 자기 충족으로만 느낄 수 있을 뿐 외부에서의 다른 어떤 대우나, 긍지 등은 별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남학생은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30.9%, '대개 그렇다'에 34.2%,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34.9%로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역으로 두 집단 모두 심리적인 특성을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로 인하여 바깥 세계로 향해 있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고, 하나의 성숙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은 어린애 취급을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5번 문항의 경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성적인 변화는 체격과 외모를 변화시키므로 우월감, 열등감, 지도성,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질문에 1987년도 남학생의 경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31.2%, '대개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24.9%,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43.8%,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29.9%, '대개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37.2%,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32.9%로 나타났다. 이렇듯 '그렇지 않다'의 퍼센트가 높게 나타난 것은 20년 전이나 현시대나 외모가 개인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다. 1900

년대에는 외모지상주의가 용모단정이었으나 2000년대에서는 인터넷과 디지털 카메라, 폰 카메라 등으로 인하여 소위 얼짱 문화가 형성되고, 잘난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6번 문항의 경우 ‘성적인 발달이 늦은 사람은 의존적이고 애정을 받고자 하는 아동기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1987년도 남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54.9%,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 42.4%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 문제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성적으로 발달이 느리게 일어나는 것을 의존적이고 애정을 받고자 하는 아동기적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도 남학생 보다 2007년도 남학생의 퍼센트가 낮은 것은 성적 성숙은 개인차가 있으며 여자는 9~16세 사이, 남자는 10~18세 사이가 성적 성숙의 시기이며, 성적 성숙의 연령이 낮아지는 원인은 유전적 원인, 우수한 영양 공급, 대중매체에 의해 접하기 쉬워진 성적자극 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Papalia(1992)에 의하면 성적으로 늦게 성숙하면 종종 불안해한다. 늦게 성숙하는 것이나 일찍 성숙하는 것이나 어느 것도 반드시 이롭다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성숙의 시기가 특히 남자 아이들에게 중요한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자신의 신체적 변화가 성적인 조숙함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림 4-2>에서 보듯이 1987년도 남학생은 2007년도 남학생보다 성적인 욕구는 학업, 스포츠, 교내외의 집단 활동을 통해서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성교제 외에도 관심을 쏟을 만한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인 조속함에 대해 성적으로 발달이 느리게 일어나는 것을 의존적이고 애정을 받고자 하는 아동기적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7년도 남학생은 1987년도 남학생보다 자신의 수치심, 열등감, 자기도취, 우울증, 불안, 분노 등의 정서적 상태가 신체적·성적 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1문항에서 6문항까지 응답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적 성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성교제관

① 이성교제는 폭넓은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대개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1987년 남학생	238(71.7)	51(15.4)	43(12.9)	332(100)
2007년 남학생	183(60.2)	76(25.0)	45(14.8)	304(100)

② 이성교제의 의의는 남녀 간의 인간적인 이해와 인격적인 결합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대개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1987년 남학생	232(69.9)	55(16.6)	45(13.5)	332(100)
2007년 남학생	158(52.0)	105(34.5)	41(13.5)	304(100)

③ 이성교제를 통해서도 동성의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名(%)	대개 그렇다名(%)	그렇지 않다名(%)	계名(%)
1987년 남학생	138(41.8)	50(15.2)	142(43.0)	330(100)
2007년 남학생	145(47.7)	94(30.9)	65(21.4)	304(100)

④ 이성교제를 통해 이성을 존중할 줄 알게 되며 공동관심사에 협력할 줄 아는 자질을 터득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名(%)	대개 그렇다名(%)	그렇지 않다名(%)	계名(%)
1987년 남학생	217(65.1)	58(17.4)	58(17.4)	333(100)
2007년 남학생	169(55.6)	100(32.9)	35(11.5)	304(100)

⑤ 이성교제에 대한 어른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지나친 염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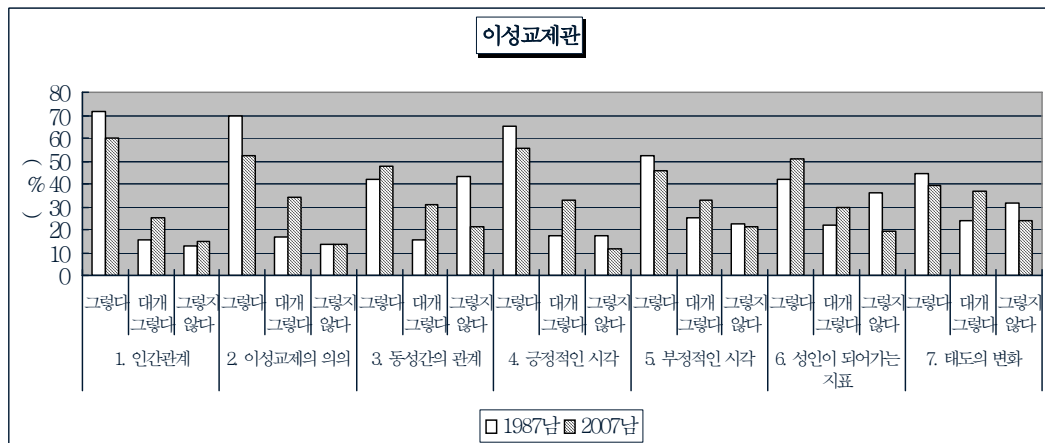
	그렇다名(%)	대개 그렇다名(%)	그렇지 않다名(%)	계名(%)
1987년 남학생	174(52.2)	83(24.9)	76(22.8)	333(100)
2007년 남학생	140(46.1)	99(32.6)	65(21.4)	304(100)

⑥ 이성교제는 성인이 되어가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名(%)	대개 그렇다名(%)	그렇지 않다名(%)	계名(%)
1987년 남학생	140(42.2)	73(22.0)	119(35.9)	332(100)
2007년 남학생	155(51.0)	91(29.9)	58(19.1)	304(100)

⑦ 이성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본질, 기쁨에 접한다기 보다는 이성에 대한 혐오감, 공포심, 의문점이 제거되며 이성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를 배우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名(%)	대개 그렇다名(%)	그렇지 않다名(%)	계名(%)
1987년 남학생	147(44.3)	80(24.1)	105(31.7)	332(100)
2007년 남학생	120(39.5)	112(36.8)	72(23.7)	304(100)



<그림4-3 이성교제관>

1번 문항의 경우 ‘이성교제는 폭넓은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1987년도 남학생들은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71.7%로,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는 60% 이상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개인체계에 친구와의 관련성이 높으며, 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이성친구가 개인의 초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환경 체계라고 생각한다.

2번 문항의 경우 ‘이성교제의 의의는 남녀 간의 인간적인 이해와 인격적인 결합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1987년도 남학생은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69.9%,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 52.0%로 답하였다. 20년 전이나 2007년도 학생 모두 이성교제는 인격적인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번 문항의 경우 ‘이성교제를 통해서도 동성의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1987년도 남학생, 2007년도 남학생은 50%는 넘지 못했지만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문희(1993)연구에

의하면 이성교제 중인 학생의 55%가 ‘동성친구와 같은 친구로 지내는 사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동성친구 정도의 가벼운 느낌으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따라서 이성 친구를 원하고 자신들의 인생 문제나 고민을 함께 나눌 친한 친구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동성의 친구와 더 많이 사귀며 가장 친한 친구 역시 동성이다. 그러므로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987년도 남학생의 경우는 이성친구와 동성친구의 관계를 다르게 보는 것은 (43.0%)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현시대의 학생들 보다 보수적이었으며 남학교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가 21.4%로 나타난 것은 현재는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으며 많은 씨클활동과 학교 축제 등을 통해서 이성과의 만남을 자주 갖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4번 문항의 경우 ‘이성교제를 통해 이성을 존중할 줄 알게 되며 공동관심사에 협력할 줄 아는 자질을 터득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1987년도 남학생의 경우 ‘그렇다’라는 답이 65.1%,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 55.6%로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5번 문항의 경우 ‘이성교제에 대한 어른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지나친 염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1987년도 남학생의 경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52.2%,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 46.1%로 나타났다. 1987년도 남학생보다 2007년도 남학생의 퍼센트가 낮은 것은 기성세대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최근의 추세는 이성교제가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은 바른 이성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이 ‘그렇지 않다’라는 답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6번 문항의 경우 ‘이성교제는 성인이 되어가는 지표라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1987년도 남학생은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42.2%,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는 51.0%로 나타났다. 1987년도 남학생은 50%를 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987년의 경우 64.2%,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 80.9%, 를 차지해 이성교제가 성인으로의 성숙(인격의 성숙)을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번 문항의 경우 ‘이성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본질, 기쁨에 접한다기 보다는 이성에 대한 혐오감, 공포심, 의문점이 제거되며 이성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를 배우게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1987년도 남학생의 경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44.3%,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는 31.7%,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39.5%,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23.7%로 나타났다. 1987년도의 경우 이성교제를 통해 사랑의 본질을 깨닫기 보다는 이성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답한 경우가 50%를 넘지 못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 한 그룹(31.7%)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아 이성교제로 이성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배운다는 것이 이성교제에 있어서 큰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으로 보아 이성교제에 관한 의식구조는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문항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1987년도 남학생 보다 2007년도 남학생이 이성교제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성교제에 있어서 인간관계, 인격적인 결함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이성교제를 통해 이성을 존중할 줄 알게 된다. 라고 답한 경우는 2007년도 남학생들 보다 1987년도 남학생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4-3>에서 보듯이 현시대 학생들도 전체적으로 50%를

넘고 있다. 이는 이성교제를 통하여 이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태도를 배우게 된다고 생각되어, 이성 친구에 대한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시각은 지나친 염려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7년도 남학생은 인간관계, 이성교제는 성인이 되어가는 지표라는 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성교제관은 두 집단 모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7년도의 남학생들이 2007년도의 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1987년도에는 남자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여학생에 대한 호기심과 사회·문화적인 여건이 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

현재는 남·여 공학으로 청소년들이 과거처럼 부모에 의해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는 세대 차이를 보이지만, 과거에 비해 현시대는 부모의 권위를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부모보다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구에게서 심리적 지지를 구하기 때문에 80~90년대 보다 덜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 또한 부모의 제약에서 벗어나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친구와의 우정을 중요시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친구와의 의존도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와 갈등은 적절하게 수용되어야 하며, 바른 이성교제를 통해서 바른 이성관을 형성하고 진실한 삶을 어떻게 영위하느냐에 본 주제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조사는 인생의 과도기적 시기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고등학교 시절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의 차이 및 영향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의 차이검증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성별, 종교, 부모의 교육수준, 생활수준, 학업성적, 이성교제경험유무)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의 차이검증을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4-2>와 같다.

<표 4-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의 차이

(N=586)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성적 성숙 이해도			이성교제관		
		M	SD	D	M	SD	D
성별	남(n=304)	2.62	.72		3.52	.85	
	여(n=282)	2.36	.56		3.25	.76	
t값		5.98***			3.99*		
종교	기독교	2.53	.62	a	3.32	.84	
	천주교	2.48	.61	a	3.46	.70	
	불교	2.55	.65	a	3.62	.79	
	무교	2.50	.69	a	3.38	.83	
	기타	3.47	.98	b	3.73	.82	
F값		4.29**			1.87		
부교육수준	초졸이하	2.47	.70		3.28	.93	
	중졸	2.39	.49		3.51	.82	
	고졸	2.50	.64		3.31	.81	
	대졸이상	2.55	.69		3.44	.82	
F값		.70			1.39		
모교육수준	초졸이상	2.73	.47		3.17	.98	
	중졸	2.45	.56		3.49	.80	
	고졸	2.51	.67		3.38	.78	
	대졸이상	2.54	.68		3.41	.85	
F값		.59			.48		
생활수준	상	2.60	.73		3.44	.98	
	중	2.51	.64		3.38	.78	
	하	2.60	.80		3.46	.86	
F값		.93			.33		
학업성적	상	2.67	.66	a	3.51	.88	
	중	2.53	.65	ab	3.41	.79	
	하	2.43	.70	b	3.29	.84	
F값		3.59*			2.24		
이성교제 경험	있다	2.56	.65		3.47	.81	
	없다.	2.49	.69		3.29	.82	
t값		1.24			2.62**		

*p<.05 ,**p<.01, ***p<.001

1) 청소년의 성별

성별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 차이에 대한 검증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98, p<.001$). 즉, 남학생은 평균 2.62($SD=.72$), 여학생은 평균 2.36($SD=.56$)으로 남학생의 성적 성숙 이해도가 여학생의 성적 성숙 이해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이성교제관의 차이에 대한 검증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99, p<.05$). 즉, 남학생은 평균 3.52($SD=.85$) 여학생은 3.25($SD=.76$)로 남학생의 이성교제관이 여학생의 이성교제관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 성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보다 더 긍정적인 이성교제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들 보다 친구나 잡지, 인터넷을 통하여 성욕의 문제와 생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더 자주 획득하고 있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이성교제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각 되었다.

2) 종교

종교의 유형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의 차이를 보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청소년들이 답한 경우 평균은 2.53($SD=.62$), 천주교를 믿고 있는 청소년들이 답한 경우 평균은 2.48($SD=.61$), 불교를 믿고 있는 청소년들이 답한 경우 평균은 2.55($SD=.65$), 종교가 없다고 답한 경우 평균은 2.50($SD=.69$), 기타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47($SD=.98$)이었다. 종교가 성적 성숙 이해도와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29$, $p<.01$). 사후 검증결과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등의 집단과 기타인 집단 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종교의 유형에 따른 이성교제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학업성적

학업성적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의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이 상위권이라고 답한 집단의 평균은 $2.62(SD=.66)$, 학업성적이 중위권이라고 답한 집단의 평균은 $2.53(SD=.65)$, 학업성적이 하위권이라고 답한 집단의 평균은 $2.43(SD=.70)$ 이었다. 이러한 학업성적이 성적 성숙 이해도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59$, $p<.05$). 사후 검증결과 성적 성숙 이해도의 경우 학업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지각한 집단과 ‘하위권’이라고 지각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신체적 변화로 생기는 심리적 변화와 갈등을 잘 조정하고, 발달과업에 대한 성취도가 높아 성적 성숙 이해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학업성적에 따른 이성교제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이성교제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이성교제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62, p<.01$).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집단의 이성교제관 평균은 $3.47(SD=.81)$ ‘이성교제 경험이 없다’라고 답한 집단의 이성교제관 평균은 $3.29(SD=.82)$ 로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보다 ‘이성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이성교제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성교제시 지켜야 할 기본예절을 잘 알고 있다고 시사한 이백희(200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 성숙 이해도가 높았으며, 이성교제관에 있어서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높을 때 성적 성숙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성교제 경험이 있을 때 긍정적인 이성교제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의 유형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의 유형에 따른 이성교제관, 부모 교육수준, 생활수준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 이성교제관,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성적 성숙 이해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검증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성별, 종교, 부모의 교육수준, 생활수준, 학업성적, 이성교제경험유무)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차이검증을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3>와 같다.

<표4-3>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

(N=586)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부 개방형			모 개방형		
		M	SD	D	M	SD	D
성별	남(n=304)	3.03	.83		3.29	.83	
	여(n=282)	3.04	.87		3.54	.84	
t값		.18			3.60***		
종교	기독교	3.06	.81		3.41	.79	
	천주교	2.94	.96		3.54	.87	
	불교	3.17	1.00		3.48	1.05	
	무교	3.01	.83		3.39	.82	
	기타	2.88	.81		3.07	1.16	
	F값		.65			.78	
부교육수준	초졸이하	2.46	.98	a	2.65	1.17	a
	중졸	2.75	.72	ab	3.09	.94	b
	고졸	2.90	.78	bc	3.30	.71	bc
	대졸이상	3.18	.87	c	3.55	.87	c
F값		8.69***			10.36***		
모교육수준	초졸이하	1.95	.72	a	2.32	.89	a
	중졸	3.03	.73	b	3.19	.73	b
	고졸	2.93	.77	b	3.37	.79	b
	대졸이상	3.22	.90	b	3.55	.87	b
F값		13.71***			10.88***		
생활수준	상	3.40	.83	a	3.64	.87	a
	중	3.04	.82	b	3.44	.79	a
	하	2.47	.91	c	2.86	1.03	b
F값		19.20***			14.22***		
학업성적	상	3.20	.98	a	3.53	1.03	a
	중	3.09	.84	a	3.49	.79	a
	하	2.81	.75	b	3.16	.81	b
F값		7.85***			8.87***		
이성교제 경험	있다	3.00	.86		3.36	.87	
	없다.	3.08	.84		3.49	.81	
t값		1.17			1.83		

*p<.05 ,**p<.01, ***p<.001

1) 청소년의 성별

성별에 따른 부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에 대한 검증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모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에 대한 검증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60, p<.001$). 즉, 남학생은 평균 3.29($SD=.83$) 여학생은 3.54($SD=.84$)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더 개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 여학생 모두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와 더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 보다 어머니와 더 의사소통을 한다는 장해순·강태완(2005), 정연호(2004) 연구와 일치한다.

2) 부모의 교육수준

부교육수준이 부개방형 의사소통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8.69, p<.001$). 구체적인 집단별 부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를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2.46($SD=.98$), 중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2.75($SD=.72$),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2.90($SD=.78$), 대학교 졸업이상 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18($SD=.87$)이었다. 사후 검증결과 (초졸이하)와 (고졸, 대졸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모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F=10.36, p<.001$). 초등학교 졸업 이하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2.65($SD=1.17$), 중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09($SD=.94$),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30(SD=.71), 대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55(SD=.87)이었다. 사후 검증결과 (중졸)과 (대졸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모교육수준이 부개방형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3.71, p<.001$). 구체적인 집단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1.95(SD=.72), 중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03(SD=.73),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2.93(SD=.77), 대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22(SD=.90)이었다. 사후 검증결과 (초졸이하)와 (중·고·대졸 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모의 교육수준이 모개방형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0.88, p<.001$). 구체적인 집단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모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를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2.32(SD=.89), 중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19(SD=.73),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37(SD=.79), 대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55(SD=.87)이었다. 사후 검증결과 (초졸이하)와 (중·고·대졸 이상)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3) 생활수준

생활수준이 부개방형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9.20, p<.001$). 구체적인 집단별 생활수준에 따른 부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를 보면, 생활수준이 상류층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40(SD=.83), 생활수준이 중류층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04(SD=.82), 생활수준이 하류층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2.47(SD=.91)이었다. 이러한 사후 검증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생활수준이 모개방형 의사소통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4.22, p<.001$). 구체적인 집단별 생활수준에 따른 모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를 보면, 생활수준이 상류층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64(SD=.87), 생활수준이 중류층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44(SD=.79), 생활수준이 하류층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2.86(SD=1.03)이었다. 사후 검증결과 상류층, 중류층 집단과 하류층 집단 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4) 학업성적

학업성적이 부개방형 의사소통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85, p<.001$). 구체적인 집단별 학업성적에 따른 부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이 상위권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20(SD=.98), 학업성적이 중위권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09(SD=.84), 학업성적이 하위권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2.81(SD=.75)이었다. 사후 검증결과 부개방형 의사소통의 경우 학업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지각한 집단과 ‘하위권’이라고 지각한 집단 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학업성적이 모개방형 의사소통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8.87, p<.001$). 구체적인 집단별 학업성적에 따른 모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이 상위권이라고 답한 경우 평

평균은 3.53(SD=1.03), 학업성적이 중위권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49(SD=.79), 학업성적이 하위권이라고 답한 경우 평균은 3.16(SD=.81)이었다. 이러한 사후 검증결과 부개방형 의사소통의 경우 학업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지각한 집단과 ‘하위권’이라고 지각한 집단 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6) 이성교제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부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를 보면,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부개방형 의사소통에 대한 검증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정의 생활수준이 상류층이라고 지각할수록, 학업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지각할수록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한다는 장해순 강태완(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부개방형 의사소통, 종교, 이성교제 경험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이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성적 성숙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표4-4>와 같다.

1)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성적 성숙 이해도

<표4-4>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이 성적 성숙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N=586)

	성적 성숙 이해도		
	B	β	t
부개방형	- .003	- .004	- .078
모개방형	- .006	- .008	- .147
상수=21.26*** F=0.35 R ² =.000 Adj-R ² =-.003			

*p<.05, **p<.01, ***p<.001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성적 성숙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2)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이성교제관

<표4-5>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이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
(N=586)

	이성교제관		
	B	β	t
부개방형	-.01	-.01	- .19
모개방형	.03	.03	.58
상수=22.49*** F=.19 R ² =.00 Adj-R ² =-.00			

*p<.05, **p<.01, ***P<.001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4. 성적 성숙 이해도가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

성적 성숙 이해도가 이성교제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4-6>에 제시되어있다.

<표4-6> 성적 성숙 이해도가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

(N=586)

	이성교제관		
	B	β	t
성적 성숙 이해도	.35	.28***	7.25
	상수=19.65***		
	F=52.61***		
	R ² =.08		
	Adj-R ² =.08		

*p<.05, **p<.01, ***P<.001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치는 성적 성숙 이해도($\beta=.28$,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적 성숙 이해도가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력 (R^2)은 8% 정도이었다.

5. 이성교제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표4-7>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성교제관		
	B	β	t
성별(1=남성, 0=여성)	.19	.11**	2.85
종교(1=있다, 0=없다)	.01	.00	.22
부교육수준(1=대졸이상, 0=고졸이하)	.10	.06	1.58
생활수준	.02	.01	.31
학업성적	-.07	-.05	-1.40
부-개방형	-.00	-.00	-.10
성적 성숙	.30	.24***	5.96
이성교제경험(1=있다, 0=없다)	.18	.11**	2.81
상수=9.11***			
F=9.00***			
R ² =.11			
Adj-R ² =.09			

*p<.05, **p<.01, ***p<.001

8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적 성숙 이해도($\beta=.24$, $p<.001$), 이성교제 경험 유무($\beta=.11$, $p<.01$), 성별($\beta=.11$,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로 볼 때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성교제 경험이 있고 성적 성숙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이성교제관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으로서는 성적 성숙 이해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 성숙 이해도가 이성교제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검증이 되었다. 이와 같이 8개의 변인이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력(R²)은

11%정도였다.

6. 이성교제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표4-8>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586)

	이성교제관		
	B	β	t
성별(1=남성, 0=여성)	.19	.11**	2.81
종교(1=있다, 0=없다)	.01	.01	.24
모교육수준(1=대졸이상, 0=고졸이하)	.00	.00	.09
생활수준	.02	.01	.37
학업성적	-.07	-.06	-1.48
모-개방형	.04	.04	1.11
성적 성숙	.30	.24***	6.05
이성교제경험(1=있다, 0=없다)	.08	.11**	2.83
	상수=8.46***		
	F=8.81***		
	R ² =.10		
	Adj-R ² =.09		

*p<.05, **p<.01, ***p<.001

8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적 성숙 이해도($\beta=.24$, $p<.001$), 이성교제 경험 유무($\beta=.11$, $p<.01$), 성별($\beta=.11$,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로 볼 때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성교제 경험이 있고 성적 성숙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이성교제관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치

는 가장 큰 변인으로는 성적 성숙 이해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 성숙 이해도가 이성교제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검증이 되었다. 이와 같이 8개의 변인이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력(R^2)은 10%정도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기 자녀의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에 대한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보다 건전한 이성교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변화의 영향, 성적인 조숙함에 대한 가치평가, 이성교제관에 대한 생각을 각 응답자가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의 결과를 인원수와 퍼센트로 나타냈으며 20년 전·후의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을 통하여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이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이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 성적 성숙 이해도가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성적 성숙 이해도 중 이성교제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K고등학교 1·2학년 남·여학생 5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는 빈도분석, 백분율, 일원변량분석, T-검증,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자료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하여 논의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 신체적 변화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 성적 신체적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87년도의 남학생과 2007년도의 남학생의 경우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는 성 특징에 대해 불만이나 당혹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7년도 남학생은 2007년도 남학생보다 14%이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초·중학교 때 이미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시기에는 그러한 신체적 변화 뿐 만 아니라 성적 성숙을 이해하게 되며, 자아가 확립되는 시기이므로 자신이 안정감 있게 잘 조정하는 능력이 배양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도 남학생의 경우는 1987년도 남학생보다 자신의 성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신체적 변화가 성적인 조숙함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1987년도 남학생은 2007년도 남학생보다 성적인 욕구는 학업, 스포츠, 교내외의 집단 활동을 통해서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성교제 외에도 관심을 쏟을 만한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인 조숙함에 대해 성적으로 발달이 느리게 일어나는 것을 의존적이고 애정을 받고자 하는 아동기적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7년도 남학생은 1987년도 남학생보다 자신의 수치심, 열등감, 자기도취, 우울증, 불안, 분노 등의 정서적 상태가 신체적·성적 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1문항에서 6문항까지 응답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적 성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에 있어서 인간관계, 인격적인 결합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이성교제를 통해 이성을 존중할 줄 알게 된다. 라고 답한 경우는 2007년도 남학생들 보다 1987년도 남학생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시대 학생들도 전체적으로 50%를 넘고 있다. 이는 이성교제를 통하여 이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태도를 배우게 된다고 생각되어, 이성 친구에 대한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시각은 지나친 염려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7년도 남학생은 인간관계, 이성교제는 성인이 되어가는 지표라는 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성교제관은 두 집단 모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7년도의 남학생들이 2007년도의 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1987년도에는 남자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여학생에 대한 호기심과 사회·문화적인 여건이 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

현재는 남·여 공학으로 청소년들이 과거처럼 부모에 의해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는 세대 차이를 보이지만, 과거에 비해 현시대는 부모의 권위를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부모보다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구에게서 심리적 지지를 구하기 때문에 80~90년대 보다 덜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 또한 부모의 제약에서 벗어나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친구와의 우정을 중요시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으면서 친구와의 의존도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와 갈등은 적절하게 수용되어야 하며, 바른 이성교제를 통해서 바른 이성관을 형성하고 진실한 삶을 어떻게 영위하느냐에 본 주제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조사는 인생의 과도기적 시기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고등

학교 시절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성별, 종교, 부모교육수준, 생활수준, 학업성적, 이성교제 경험유무)이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의 차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 성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긍정적인 이성교제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들보다 친구나 잡지, 인터넷을 통하여 성욕의 문제와 생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고 있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이성교제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각 되었다.

종교가 성적 성숙 이해도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결과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등의 집단과 기타인 집단 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학업성적이 상위권일 때 성적 성숙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성숙 이해도의 경우 학업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지각한 집단과 ‘하위권’이라고 지각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신체적 변화로 생기는 심리적 변화와 갈등을 잘 조정하고, 성적 성숙의 이해도가 높고, 발달과업을 잘 성취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바르고 긍정적이 이성교제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성별, 종교, 부모교육수준, 생활수준, 학업성적, 이성교제 경험 유무)이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모개방형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

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정의 생활수준이 상류층이라고 지각 할수록, 학업성적 상위권이라고 지각 할수록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이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적 성숙 이해도가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성숙 이해도가 높을수록 이성교제관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수한 영양 공급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의 속도가 예전보다 현저하게 빨라졌으며, 이미 초·중학교 시절부터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이러한 변화는 신체적·생리적·심리적·사회적 발달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성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에 있어서 이성교제는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며, 교우관계, 이성관계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이므로 끊임없는 관계를 통하여 바른 사고를 확립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이성교제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성적 성숙 이해도, 성별, 이성교제 경험 유무가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적 성숙 이해도로 나타났다. 이미 앞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해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적 성숙의 이해도가 높았으며, 성적 성숙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이성교제관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 성숙 이해도가 이성교제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검증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논의해 보면,

김주희·송은일·강성희(2003)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성 태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모두가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성 행동에 있어서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더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려 되었으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측정 도구의 타당성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년 전의 교지에 실린 질문지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2007년도 청소년의 실정에 얼마나 잘 맞는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질풍노도기인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반항하며, 독립을 시도하고, 이성관계,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적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 힘들 것으로 추론해 본다. 이는 허재경(2001)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들은 흔히 자녀와 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효과적으로 자녀에게 성지식을 전달해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한국의 부모들은 아직까지 자녀와 성에 관한 대화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또래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또래관계의 하나인 이성 친구와의 관계가 음성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성적 성숙 이해도와 이성교제관에 한정시켰으므로 후속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성행동, 성태도, 성교육, 이성교제 영향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보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 또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영향보다 또래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는 K고등학교 1·2학년으로 한정 시켰으므로 결과 해석이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앞으로는 중학교, 대학교, 근로 청소년 등 조사 대상의 폭을 넓혀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고용동(1988). 한국 노동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애자(1990). 중학교 학생들의 이성 친구에 대한 태도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관악고등학교(1987). 관악인의 의식구조 -성적 발달과 이성교제관에 대한 심층 분석, 관악산 제 14호.
- 권성혜(2002). 청소년 이성교제 경험에 내재된 성의식·성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연(2005).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및 정서 상태와 청소년 문제행동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199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1984). 비행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남희(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2005). 청소년 성행동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2(2), 120-140
- 김성일·김남희(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14(1), 75-89.
- 김성애(2006). 가족 속에서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 문화연구소 <청소년 문화포럼> VOL.14.

- 김영희·조주영(2006). 청소년의 위험 성행동과 관련된 개인 : 가족·주변 환경 체계 요인의 경로 모형. **대한 가정학회지**, 44(3), 181-195.
- 김원중(2003). 남녀공학·비공학 고등학생의 이성교제 실태 비교 연구. **교육 이론과 실천**, 13(3), 59-109.
- 김정규(2006).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성행동에 대한 인과 요인의 변이-부모통제, 종교성, 비행친구,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40(3), 91-124
- 김정희(1993). 어머니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희·송은일·강성희(2003). 성태도·성행동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 학회지**, 41(1), 111-124
- 김철영(2005). 남녀공학·별학이 청소년들의 성의식 및 양성평등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련(1992)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 한국 청소년 연구원(편) 「청소년 심리학」. 한국 청소년 연구원.
- 김태련·장휘숙(1998). **발달심리학**, 박영사.
- 김혜란(2000) 인터넷 상담사례에 나타난 청소년의 이성교제의 특성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2003). 남녀 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현황 및 관계분석. **한국 심리학회지**, 15(2), 309-328.
- 김혜원·이혜경(2000) 청소년들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 방향의 모색 :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실태에 근거하여. **한국 심리학회지**, 4(2), 29-45.
- 노정화(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수경(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한국 가족 복지**, 10(3), 105-125.
- 박정자((2005).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성격과의 관계 연구 -경기도 시흥시 고등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민(2004). 부부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규칙의 정도에 따른 가족 의사소통 효율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자(2006).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 성숙도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정(1996).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 허용성, 성지식 성 역할 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2005).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봉공진·이명미·이경옥·오춘근·이의순(2001). **기술·가정**. 형성출판사.
- 서상원(2005). 대중매체가 한국교회 고등학생의 성의식. 아세아 종합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승배(1985). 청소년 가치관에 관한연구-충남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중심으로. 한남대 지역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기석(2005). 중학생 성의식 수준과 성행동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재엽(1991). 중·고등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연(2006).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

- 성숙도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병자(2004).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실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성희(2006). 성지식, 성태도,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1987). **인간발달 신강**. 문음사.
- 유안진·서봉연(1982). **인간발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금영(1991). **청소년 이성교제 이해하고 계십니까?** 문정사.
- 이문희(1993).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성교육실시의 타당성과 성교육 지도 방향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백희(2000). 중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이성교제 및 성의식 실태조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옥(2003). 청소년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적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열(2005). 청소년의 성의식과 이성교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이춘하·이정애(1996). 청소년 이성교제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보고서**, 95-05.
- 이정우외 공저(1997). **최신가정경영학**, 수학사.
- 이종명(1989).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식·김윤정(2003). 청소년들의 사랑과 성태도 :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0(1), 277-296.

- 이평구(2003). 청소년의 성의식과 학업성취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금자(2005). 청소년의 성의식과 이성교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 공저(2005). **개정판 가정 관리**, 신정.
- 장해순·강태완(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3(2), 104-130.
- 정연호(2004).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전남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승희(2003). 청소년 이성교제 실태 비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중환(1989).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바울서신사.
- 최순남(199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한신대학교 출판부.
- 최인수·원윤선(2000). 한국 중·고·대학생들의 이성 친구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미(2002).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대전광역시 서구지역 중·고생을 중심으로,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용학(1976). 고등학생의 성도덕과 실태연구-서울시내 남녀학생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영·송정아(2006). 성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지식 및 성태도 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1), 47-58.
- 한국가족학연구회(1973).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 교문사

- 허재경(2001). 부모-자녀의사소통 유형과 성태도 및 성행동과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봉선(2002). 청소년 성주체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79-117.
- Barnes, H.L., & Olsen, D.H.(1982).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in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Larson, A.,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inesota : Univ of Minnesota.
- Hurlocks. E.,(1995) Adloescent development,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 Pany Inc.,
- Jones, M.C.(1958). The study of socialization patternes at the high school level. *Journal of Genetic Psyschlolgy*, 93, 87-111
- Miller, G. R., & Steinberg, M.(1975). Between people : A New Analysi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hicago : Science Reseach Associates.
- Muuss, Rolf E(1981) **Theories of Adloescence**. 송종두 역
- Olson, D.H., Russell, C.S., & Sprenkle, D.H(1979). Circunplex model of marital system I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
- Papalia, D. E 외(1992), **인간발달**. 정옥분 역
- Peskin, H(1973). Influence of the developmental schedule of puberty on learning and ego funcation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 273-290
- Stone, L. J., and Church, J.(1957) *Chuildhood and Adolescence*. New Somatic Variat York: Random House.

ABSTRACT

The research of the adolescent open communication, degree of understanding about sexual maturation and perspective on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 focused on the 1st and 2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Park, Hye–Soon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analyses how the adolescent perspective on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has changed throughout the physical growth with the sexual maturation and psychological conflict on dating. Also, this is about how parent and children communication affects a degree of understanding about sexual maturation and perspective of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The core method of this research starts with the feature story of K high school's magazine in 1987 by comparing the current to the past 20 years. The different conditions of sex,

religion, parents' educational level, a standard of living, a school record, a dating experience verified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bout sexual maturation and the perspective of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Moreover, this article approaches the social-demography variables to explain how th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ren has the influence on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bout sexual maturation and the perspective on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Finally, it identified the most powerful valuable of the perspective on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The material on the research is the survey of 586 K high school students in Yeongdeungpo-gu and the result is the statistics of a percentage, a frequency analysis, a T verification, a member variate analysis, a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a multiplex regression analysis by the SPSS Win 14.0 program.

The result of the research has these five main points.

First, the comparison analysis of two male student groups of 20 years gap have shown that the case of year 1987 more experienced a sexual desire and less felt the dissatisfaction or perplexity of sexual feature with the physical change than the year 2007 students did. And about the value of sexual prematurity, the more proportion of the year 1987 male student group thought that it was desirable to sublimate a sexual desire in the group activity and agreed that there were more important things they had to be interested besides dating

during the high school times. Also, they thought that the early maturity made oneself have a pride and be treated like an adult, while the year 2007 students answered that the psychological status had not related to the sexual and physical change than the year 1987 students did. About the perspective on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the male student group of the year 1987 focused on the human relationship development, understanding man–woman relationships, personality matching and respect for opposite sex, meanwhile, the most year 2007 male students responded that dating is the index of becoming adults. However, both groups have high proportion for the answer that they can learn respect for the opposite sex throughout the human relationship development, personality matching and dating. Although survey has the different number among two groups, it can be concluded that both well understand about sexual maturation and have positive perspective on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Second, in the study of the differences of understanding about sexual maturation and the perspective on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male students had more positive attitudes than female students had. The higher school record students had the better understanding about sex maturity and the adolescents who had experience in dating had positive perspective on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Third, the survey had shown that female students had 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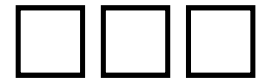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 than male students did. Also, the higher parents' educational level and the standard of living had the more likely had the open communication among parents and adolescents.

Forth, the variable "parent and children open communication" does not affect this survey results. However, degree of understanding about sexual maturation takes effect the perspective on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and this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conclusion, this survey identified the variables ---a degree of understanding about sexual maturation, sex, a dating experience --- had an effect on the perspective on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and the variable that loaded most highly on that single factor was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bout sexual maturation. Students who studied in the male high school 20 years ago ha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dating than the current students had. In addition, male students had better understanding of sexual maturation and the right perspective on dating than female students had. The students who had experience to date and better understanding of sexual maturation had a very positive perspective on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About the open conversation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female students did more often than male students did and the influential factor was the parents' educational level, standard of living and the school

record.

This research results are to understand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nges by comparing the current adolescents to the case 20 years ago and to apply for the preliminary data to instruct students to have right and healthy perspective on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질문지

청소년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에 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청소년 여러분의 이성교제와 신체적변화로 나타나는 성적발달에 따른 심리적 변화, 성격, 자아의식,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바를 그대로 질문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으며,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질문 내용을 잘 읽고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가족학전공 박혜순

2007년 7월

* 다음은 귀하의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10. 다음을 읽고 부모님 각각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부모-자녀 의사소통).

(아버지)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1	2	3	4	5
1	2	3	4	5	2. 때때로 그의 말씀을 믿기 어렵다.	1	2	3	4	5
1	2	3	4	5	3. 늘 내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신다.	1	2	3	4	5
1	2	3	4	5	4. 내가 원하는 바를 부탁드리기 어렵다.	1	2	3	4	5
1	2	3	4	5	5.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감정이 어떤지 잘 아신다.	1	2	3	4	5
1	2	3	4	5	6. 내가 어떤 말을 하려면 나에게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다.	1	2	3	4	5
1	2	3	4	5	7. 함께 대화를 하면 만족스럽다.	1	2	3	4	5
1	2	3	4	5	8.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에게 차라리 아무 말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한다.	1	2	3	4	5
1	2	3	4	5	9. 나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두 털어 놓을 수 있다.	1	2	3	4	5
1	2	3	4	5	10.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어렵다.	1	2	3	4	5
1	2	3	4	5	11.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다.	1	2	3	4	5
1	2	3	4	5	12. 대화를 하느니 차라리 말을 안하는 편이 더욱 마음 편하다.	1	2	3	4	5
1	2	3	4	5	13. 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1	2	3	4	5
1	2	3	4	5	14. 나에게서는 함께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많다.	1	2	3	4	5
1	2	3	4	5	15. 내 의견을 존중해 준다.	1	2	3	4	5
1	2	3	4	5	16. 잔소리가 싫다.	1	2	3	4	5
1	2	3	4	5	17.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자주 의논한다.	1	2	3	4	5
1	2	3	4	5	18. 화가 나시면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	1	2	3	4	5
1	2	3	4	5	19. 나의 느낌을 솔직하게 털어 놓는다.	1	2	3	4	5
1	2	3	4	5	20. 내 진심을 그대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1	2	3	4	5

11. 다음 문항은 성적 성숙 이해도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대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1. 나의 신체적 변화는 나의 생활(학업, 교우관계,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4	3	2	1
2. 나는 성욕을 느낀 적이 있다.	5	4	3	2	1
3. 나는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는 성 특징에 대해 불만이나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5	4	3	2	1
4. 나는 나의 성적인 성숙이 정상인지 아닌지 고민이 된다.	5	4	3	2	1
5. 나는 자신의 성적인 변화(신체적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	5	4	3	2	1
6. 자신의 수치심, 열등감, 자기도취, 우울증, 불안, 분노 등의 정서적 상태가 신체적, 성적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7. 성적인 욕구는 학업, 스포츠, 교내외의 집단활동을 통해서 건전하게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5	4	3	2	1
8.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성교제 외에도 관심을 쏟을 만한 중요한 일들(학업, 취미 생활, 교우관계, 써클생활 등)이 많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9. 성적인 조숙함은 자신의 성숙에 긍지를 갖게하고, 또 어른스러운 대우를 받게 한다.	5	4	3	2	1
10.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성적인 변화는 체격과 외모를 변화시키므로, 우월감, 열등감, 지도성,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	5	4	3	2	1
11. 성적인 발달이 늦은 사람은 의존적이고 애정을 받고자하는 아동기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 뒷면계속!!!

12. 다음 문항은 이성교제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대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1. 이성교제는 폭 넓은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2. 이성교제의 의의는 남녀간의 인간적인 이해와 인격적인 결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3. 이성교제를 통해서도 동성의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4. 이성교제를 통해 이성을 존중할 줄 알게 되며 공동관심사에 협력할 줄 아는 자질을 터득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5. 이성교제에 대한 어른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지나친 염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6. 이성교제는 성인이 되어가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5	4	3	2	1
7. 이성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본질, 기쁨에 접한다기 보다는 이성에 대한 혐오감, 공포심, 의문점이 제거되며 이성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를 배우게 된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 뒷면계속!!!

13. 이성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다(경험이 있는 사람만 다음 문항에 계속 답해 주십시오.)

1) 있다.

2) 없다.

문항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대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1. 이성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은 동성친구와 마찬가지로 서로 이해하고 충고할 수 있는 친구라는 점이다.	5	4	3	2	1
2. 어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이성교제 자체를 음성적으로 만들며, 자연스럽게 못하게 만든다.	5	4	3	2	1
3. 이성에 대한 잡념으로 공부에 방해가 된다.	5	4	3	2	1
4. 이성교제는 여러 면에서 내게 도움이 되고 있다.	5	4	3	2	1
5. 이성교제를 통해서 이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5	4	3	2	1
6. 이성교제를 통해 사춘기의 남녀간의 생리적 변화의 차이 등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5	4	3	2	1
7. 이성과의 교제에서 '대화'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5	4	3	2	1